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기술이행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6.2.24(화) 14:00~17: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지, 인니, 남아공, NGO 등 약 40명
- (주요의제) 남방 참다랑어(SBT) 폐기량, 전재, 데이터 수집, 어획증명 제도 내 코드 사용, 변환계수 및 회수율 등

□ 주요내용

- SBT 폐기량 검토 양식
 - 사무국은 이행위에서 SBT 폐기량 검토를 위한 새로운 문서 양식을 준비하였고 회원들은 사무국이 준비한 문서 양식이 검토에 유용할 것이라고 하였음
- 지속적인 불이행 사안 후속조치
 - 지속적인 불이행 사안들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부재한 것과 관련하여, 회원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의장은 eCDS 도입으로 이행위에서 검토할 양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올해 eCDS 기술작업반 회의에서 논의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음
- SBT 전재 관련 리스크
 - 사무국은 다른 기구에서 허가되었으나 CCSBT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운반선에 의한 SBT 전재가 SBT 전재 관련 가장 큰 우려사항이라고 하였음. 다른 기구에 정보 요청을 하여도, SBT 전재가 해당 기구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SBT 전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음

- 뉴지는 사무국에 AIS 데이터를 활용한 확인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사무국은 비회원 선박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전재신고서와 교차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였고 사무국 예산 부족으로 외부용역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음
- 사무국은 가장 취약한 해역이 IOTC 해역이라고 하였고, 회원들은 IOTC 해역에서 DNA 샘플링을 통한 조사와 혐의 발견 시 기국 조사를 요청하는 접근에 공감하였음

○ 로그북 및 옵서버 데이터 신뢰성 제고

- 호주와 뉴지는 자국 EM 활용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였음. EM 녹화물을 선상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물리적으로 육상에 보내는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육상에서 신속히 분석하고 있다고 하였음. 녹화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였음
- AI를 활용한 EM 녹화물 분석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AI로 어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이미지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EM 도입 초기에는 외부 업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옵서버 출신 분석가('dry observer')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음
- 선박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전과 이후에 해당 선박의 로그북 데이터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음

○ CDS 내 기타(OT) 코드 사용

- 사무국은 현재 OT 코드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합의된 상품 유형이 없을 경우 교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바, 상품 유통을 올바르게 추적하기 위해 OT 코드를 대신하는 추가적인 상품 코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회기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변환계수**(conversion factor) 및 **회수율**(recovery rate)

- 사무국은 현재 변환계수의 경우, 회원별로 사용하는 변환계수들이 있고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자동으로 선택되는(default) 변환계수가 있는바, 어획모니터링서식(CMF)에서 회원들이 사용하는 변환계수들이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default 변환계수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음
- 하나의 SBT에서 여러 종류의 상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단일한 변환계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음. 필레와 로인에 대해 사무국이 사용하고 있는 default 변환계수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변환계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하나의 SBT에서 회수할 수 있는 최대 고기량 비율(recovery rate)을 적용하여 CMF와 이후 단계 증명서들 간 SBT 수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음
- 의장은 지난 이행위에서 최초 CMF에 보고된 양보다 재수출증명서 서식(REEF)에 보고된 양이 더 많은 불이행 이슈(인니)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특정 회수율을 적용했을 때 CMF에 보고된 양을 초과하는 양이 전자어획증명제도(eCDS) 내 이후 단계에서 확인될 경우, 교역을 중단시킬 것인지를 제기하였음. 회원들은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하고 기준점을 초과하면 통관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회기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회기간 과정 참여**

- 사무국은 OT 코드, 변환계수, 회수율 관련 회기간 논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3.13(금)까지 사무국에 담당자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음